

광양제철소, 광양시에 도민체전 성금 전달



조노하(오른쪽) 광양제철소장은 21일 광양시청을 방문. 이백구 광양시체육회 부회장에게 도민체전 체육성금으로 써달라며 3천만원을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김장환 도교육감 보성회천初 영어체험실 방문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21일 보성회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영어체험실을 둘러본 뒤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과기원, 초등학교에 과학 도서 기증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의 날을 맞아 20일 봉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천안지역 8개 초등학교에 학교당 140만원에 상당하는 과학관련 신간도서를 기증했다.

호남대 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



호남대학교는 지난 20일 2009학년도 학생홍보대사(13명)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들 학생홍보대사는 대학홍보 및 대학의 주요행사 등 홍보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게 되며, 장학금 혜택과 각종 특전을 부여받는다.

구례 오일장 지키는 젊은 대장장이 박경 중씨

代 이어 12년째 '열정'을 두드린다



노점상의 손님 부르는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오랜만에 만나 사돈과 인사하는 소리. 온갖 소리가 어우러져 왁자지껄한 시골장터에 탕.탕.탕. 망치소리가 장단이라도 맞추듯 울려 퍼지고 있다.



3월과 8월에 열리는 구례 장날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젊은 대장장이 박경중(34세)씨의 메질소리며 무디어진 낫이며 칼이며 호미와 팽이가 박씨의 손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소리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 박정복씨가 40여년간 가업으로 이어오던 대장간을 3형제중 막내인 박씨가 이어 받은 지 벌써 열두 해가 지나갔다.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서 망치질과 풀무질로 놀이를 하던 셋째 아들이 가업을 잇게 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자긍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광양제철소에서도 잠시 일했던 박씨가 어린 나이에 대장간 가업을 이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구례오일장과 광양장, 순천장을 돌면서 하루일당도 벌지 못할 때가 허다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일을 시작할 때의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은 쇠를 다루는 기술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다고 한다.

박씨의 모든 작업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담금질의 공정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낫과 호미가 만들어지고 팽이가

탄생한다. 공장에서와 같이 대량 생산은 안되지만 박씨의 손에서 만들어진 농기계와 생활용품은 튼튼하고 수명이 길어 박씨의 물건을 한번 구입한 사람들은 박씨를 다시 찾는다고 한다.

박씨는 요즘 시간만 나면 도로공사 현장을 찾는다. 낫자루며 호미자루로 사용할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다.

박씨의 아버지는 모든 자루를 꼭 소나무만을 썼다고 한다. 그래야 잘 빠지지 않고 오래간다고 해 박씨도 자루만은 소나무를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자루가 튼튼하고 편해야 사용하는 기구가 불편하지 않다는 박씨 가문만의

비법인 셈이다. 젊은 대장장이 박씨가 호미자루, 낫자루에 신경을 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박씨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이 쉽지 않아 고심의 연속이라고 한다.

좀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두드리는 박씨의 망치소리에 힘과 내일이 실어있다. 젊은 대장장이 박경중씨는 75년생으로 4살난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이며 구례오일장과 광양장, 순천장을 돌며 농기계 등을 직접 제작 판매하는 장인으로 22살에 대장장이 길에 들어서 지금까지 쇠를 두드리는 대장간 일에 종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Hk5826@

윤택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고관절 시범수술·토론회



화순전남대병원 관절센터 윤택림 교수(고관절 전문의)가 오는 23~24일 병원에서 '2009국제 고관절 시범수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범수술 및 토론회는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앞선 일본 고관절 전문 의료진과 고관절 환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 교수는 시범수술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부터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수술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며, 고관절 무릎염 과사증을 치료하는 회전 절골술과 인공고관절 치환수술법, 인공고관절 재치환수술법 등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춘계역도경기대회 참가



김철주 조선체육대학장은 22~27일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제57회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인솔해 참가한다.

전국직업전문학교협 회장예



김윤세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 22일 오후 2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의실에서 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한다.

김보현 前 조선대 미대 교수 뉴욕서 미술관 열고 회고전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92세의 현역 화가 김보현 화백(미국명 Po Kim)이 미술관을 열고 50년 작품세계를 정리하는 회고전을 연다.

오는 22일 뉴욕에서 문을 여는 '월드 앤 김 갤러리(Wald and Kim Gallery)'는 김 화백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자택 겸 작업실로 쓰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꾸미고 본인과 아내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개관전(5월15일까지)은 김 화백과 역시 미술작가인 실비아 왈드(Sylvia Wald·93)의 작품세계를 정리하는 2인전이다.

이 미술관에서는 또 오는 8월 국립현대미술관 입주작가 출신 8명의 뉴욕 그룹전이 열릴 예정이고 12월에는 뉴욕 한국문화원 30주년 기념전도 개최된다.

김 화백은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1946년 조선대 예술학과를 창립한 조선대의

첫 전임교수였다. 하지만 해방전후 좌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서 좌익, 우익혐의로 몰리다 1955년 미국 일리노이대 교환교수로 떠났고 이후 귀국하지 않고 뉴욕에서 활동해왔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옥살이와 고문을 당한 기억 때문에 30여년간 한국사회와 연락을 하지 않아 한동안 '사라진 화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도미 초기에는 뉴욕 소호의 벤틀리 공장에서 벤틀리에 그림을 그리는 일로 시간당 1달러를 벌며 힘겹게 살아왔다.

그는 한국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피하려 살기도 했다. <연남뉴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파키스탄서 번역 출간



이청준의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이 파키스탄에 번역, 출간되며 한국문학의 서남아시아 진출에 힘을 보탤다.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제)은 재단의 연구지원으로 '당신들의 천국'이 파키스탄의 3개 공용어 중 하나인 우르두어로 번역됐다고 21일 밝혔다.

파키스탄에 한국소설이 소개된 것은 한국문화재단선집과 한국현대중편소설선에 이어 세 번째로 장편소설로

는 처음이다. '당신들의 천국'은 지금까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됐다.

한편 '당신들의 천국'을 출간한 파키스탄의 마살출판사는 올해 안에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삼화'도 번역해, 출간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지리산녀 眞 성영옥씨



지리산 남악제 기념행사인 제21회 지리산녀 선발대회가 지난 20일 구례종합사회복지관 심진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선발대회에서는 진(眞)에 성영옥(구례·사진)씨, 선(善)에 서혜진(경남 김해)씨, 미(美)에 박소희(서울)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인·

의·예·지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으며 교육상 1명, 우정상 1명, 특별상 1명에게는 부상으로 동양화 그림 1점씩

이 수여됐다. 7명의 지리산녀는 앞으로 1년간 구례를 대표하는 관광 모델과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례=이진택기자 Hk5826@

지리산 지킴이 함태식옹

피아골자연센터 재취업



지리산 지킴이 함태식(81)옹이 38년간의 산장생활을 마감하고, 피아골방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로한 함옹의 건강이 열려지고, 조난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산장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무처를 피아골산장에서 산아래 피아골방지원센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기자 Hk5826@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소이길·신선심씨 장남 은석(금영감독원)군 박기범(삼영주유소 대표)·노춘이씨 장녀 서경(경기여자고교 교사)양= 25일(토) 오후 1시 서울 금영감독원 2층 강당.
▲김길원(전 광주일보 판매국장)·오정희(예지한복)씨 차남 중현(광주은행 자금시장부)군 이이섭·김명숙씨 장녀 송아(미래에셋 맵스 자금운영)양= 25일(토) 오후 3시 서울 웨딩의 전당 1층(그랜드볼룸)
▲조영수·장형순씨 차남 대근군 이은상·유성례씨 사녀 현명양= 25일(토) 오후 1시 명성예식장 1층 특실.
▲배종민(전 초등학교 교사)씨 아들 준성군 오기주(전 광주시 남구 의사국)씨 딸 형진양= 25일(토) 오후 1시 상무지구 CMB광주방송 컨벤션홀.
▲임택(전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리과장)씨 차녀 한송양 김동천(동천유통 대표)씨 장남 양수(현대모비스 실장)군= 26일(일) 오전 11시30분 광주메리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문병관(전 조선대 교수·시인)·김숙자씨 딸 현화양 김용진씨 동생 안석군= 26일(일) 오전 11시4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정찬용(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임미경씨 아들 은수(미래에셋 자산운용팀)군 김중덕(농업)·이서을 웨딩의 전당 1층(회사원)양= 26일(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세종홀)
▲정찬용·김정자(전 21세기 여성라이프스클럽 회장)씨 장남 일훈군 김재철씨 동생 재임양= 26일(일) 오전 11시40분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정재준·허행숙씨 장남 형석(미

- 국 아마커스)군 김정길(김정길내과 원장)·최란희씨 삼녀 소연양= 26일(일) 낮 12시30분 상무지구 라마다 프라자 호텔 4층.
동창·동문회
▲강진 병영 초등학교 제51회 동창회(회장 김남욱)=24일(금) 오후 7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휴양콘도. 010-5075-1636.
▲목포고등학교 개교 67주년 기념행사= 25일(토) 오후 4시30분 제35차 목중·고의 밤, 26일(일) 오전 9시 제37차 친선체육대회. 062-222-0030.
▲전남고 총동문회·함마음축제= 26일(일) 오전 9시 모교운동장.
▲동신고 광주지역동문 한마음 체육대회(범동회 회장 이병만)=26일(일) 오전 9시30분 동강대학 운동장. 011-625-4400.
▲화순 동문중학교 1회 동창회(회

- 장 조영철)=26일(일) 오전 9시 모교 체육관. 010-5068-8616.
▲학다리중·고 광주전남동문회(회장 노승희) 무등산 산행= 26일(일) 오전 9시30분 증심사 버스종점 전복식당 앞 출발.
▲광덕중학교 총동문회(회장 손철승) 광덕가족한미당 체육대회= 26일(일) 오전 9시 모교 대강당. 010-2603-9377.
▲재광 특립남초등학교 총동창회= 26일(일) 오전 9시 지하철 소재역. 010-8996-8732.
▲특립 남초등학교 70주년 준비모임(총동문회 정기총회 겸 고향 오봉산 산행)=26일(일) 오후 2시 모교 강당. 010-9866-6066.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나무석) 이사회 개최= 24일(금) 오후 6시30

- 분 금호종합금융 5층 광주·전남발전연구회의실. 062-233-1921.
▲광산구행정동우회(회장 조동희) 춘계총회= 27일(월) 낮 12시 목포 해돋이 회관. 광주송정역(오전 8시40분) 집결.
부음
▲이영례씨 별세 범선규·현규·현균·선순씨 모친상= 발인 23일(목)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장승주씨 별세 태선·형선·홍선·명옥·진희·현옥씨 부친상= 발인 23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윤해순씨 별세 박만홍·현지·연중씨 모친상= 발인 23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김하근씨 별세 종만·종삼·종태·영숙·윤아·영순씨 부친상= 발인 23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매순씨 별세 김이현·기현·양현·보현·순애·금순·금자씨 모친상= 발인 23일(목) 무등장례식장 102

Advertisement for '프리드' (Freedom) by '현대중앙상조' (Hyundai Joong-ang Sang-jo). Includes contact number 1688-3740 and a photo of a man in a suit.